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The Pattern of Time Allocation of Husbands and Wives: Based on the Household Production Approach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허 경 옥

Sungshin Women's University, Home Management Dept.
Instructor : Kyungok Hu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방법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연구결과 |
| I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ime allocation pattern of husbands and wives. This study investigated i) the pattern of time allocation in the light of the extent of time spent in housework, child care, and leisure among husbands and wives living in urban area, ii) the differences in extent of time spent in such activities between wives and husbands, and iii) the determinants of time spent in such activities. A system of time allocation equations based on household production theory and several hypotheses explaining the distribution of domestic work among couples were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attern of time allocation was different between wives and husbands. Regardless of women's employment status, wives were more likely to have dual responsibilities than were husbands. The time equation employed in this study had more explanatory power in the pattern of time allocation of wives than of husbands, and of employed wives than of non-employed wives. The sex-role ideology hypothesis was supported for non-employed wives, but not for employed wives. The time availability hypothesis was supported for the time allocation of employed wives and husbands. The economic efficiency hypothesis was supported

* 이 논문은 199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or employed wives' time allocation.

I. 서론

시간의 중요성에 인식과 함께 시간사용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는 가정학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시간사용구조, 제한적 시간자원의 합리적 사용, 관리적 측면의 시간, 시간사용과 생활의 질, 가사노동시간의 경제적 가치 측정 등 시간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김외숙과 이기춘(1988)은 20년(1962년-1987년)간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 온 시간사용에 관한 기존연구 43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간사용연구의 주요영역은 시간사용실태파악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시간, 가사작업 간소화와 관련된 시간 연구, 여가시간연구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가정학 분야이외에도 인접 학문분야에서 시간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 신가정경제학과(New Home Economics)의 발전으로 시간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가정생산모델에서도 소득에 근거한 시장재의 소비가 효용을 창출한다고 고전적인 견해와는 달리, 투입요소로서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시장재와 시간의 결합으로 가정생산물(Household Commodities)이 창출되고 이 생산물이 효용을 창출한다고 보았다(Berk, 1980). 이 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미국 가정경제학자들이 시장노동, 가사노동, 그리고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배분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다. 결국,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신가정경제학적 접근은 시간배분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원의 최대효용과 만족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시간사용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는 시간사용 관련변수 고찰 또는 결정요인 분석에서 이론적 기초나 응용없이 각 연구마다 서로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같은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기초적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학문적 발

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신가정학과와 가정생산이론으로 이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모델을 응용·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특정활동의 시간분석이 아닌 시장노동, 가사노동, 육아노동 그리고 여가활동의 전체적 시간배분구조를 분석하여 가정생활의 전체적 상황을 파악한다. 다시 말해, 시간배분구조는 개인의 특성, 가족 상황, 사회·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므로 시간배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조사한다. 결정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분석모델은 전체적으로는 가정생산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과 관련한 부분은 가사 및 육아노동 분담가설을 응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부의 시간사용실태 및 구조를 파악한다.
2. 성별에 따른 시간배분구조의 차이를 검증한다.
3. 부부의 시간배분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부부의 시간배분실태 및 결정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도시부부의 일상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자원사용상의 균형상태와 관련하여 생활상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는 생활의 질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시간사용과 관련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1960년대 이후 시간사용과 관련한 우리나라 가정학분야 초기선행연구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시간사용실태 분석이었다(김외숙, 이기춘, 1988; 문숙재, 1996). 그 이후 취업주부의 증가로 인하여 취업주부 및 맞벌이가정 남편의 시간사용구조 파악에 중점을 두어왔다. 취업주부의 이중적 역할과 관련하여 가사노동시간 단축, 가사의 합리화 및 적정화, 시간

관리 전략, 시장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의 균형화 등의 중요성을 지적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자녀 및 대학생 생활 시간구조, 농촌부부의 시간사용실태, 단독가구 여성의 가사노동 등 연구대상이 다양해졌으며, 시간사용 구조 결정요인 파악, 외국 부부의 시간사용비교, 시간사용과 생활의 질 등 연구주제가 다양해져 왔다(김외숙, 이기춘, 1988; 문숙재, 1996). 초기보다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주제의 다양화 및 연구방법상의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마다 활동별 영역의 정의,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지역 및 표본추출방법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연구결과들의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시간사용실태와 관련 변수의 영향력 조사연구를 살펴보자.

A) 시간사용실태 연구

〈표 1〉에 제시한 최근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주부는 대략 평일 하루 약 7-8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시간사용구조를 비교, 정리한 연구에서(예: 문숙재, 1991; 김정희, 1993)는 이 보다 다소 긴 시간인 8-10시간 정도로 밝히고 있어, 최근 연구에서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는 전제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감소라기보다는 전업주부에 비해 적은 가사노동시간을 할애하는 취업주부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주부의 시간사용실태 분석에서 일치하는 견해는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홍향숙, 박수경(1994), 한경미(1989), 홍성희(1993) 등의 연구결과에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대략 3-4시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적 시간은 활동별 분류상의 차이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업주부의 경우 4-5시간, 취업주부의 경우 2-3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의 취업여부가 여성자신의 시간배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현아(1994)는 기혼남성의 시간사용을 연구하였는데, 평일 수입노동시간은 11시간 43분으로 측정되었고 사회·문화적 시간은 평일에 3시간미만, 토요일에 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남편은 시장노동시간이 매우 과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반면, 가사노동 및 육아참여시간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남편의 시간사용은 맞벌이가정의 취업주부의 이중적 노동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추측케 한다.

B) 시간사용 관련요인 조사 연구

시간사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련 변수의 영향력 검증연구를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자별로 살펴보자. 이기영과 이승미(1994)는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실태를 가정생활주기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주부의 경우는 생활주기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생활시간구조가 상이한 반면, 취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경우는 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미(1991)는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평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검증결과 소득수준, 가족수, 시장노동시간, 가족형태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는 막내자녀연령과 수입노동시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오경희(1995)는 청주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는데, 관련 변인의 영향력 검증결과 주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는 주부연령, 학력, 소득, 결혼지속연수,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사회·문화적시간은 주부연령, 소득, 결혼지속연수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기영 및 연구자(1996)들의 도시근로자 남편의 생활시간분석 연구에서 기혼남성의 경우 평일 하루 평균 10시간 55분을 수입노동과 이를 위한 이동시간에 할애하고 있어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불균형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의 관련 변인 영향력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가사작업과 가족원 들

〈표 1〉 우리나라 부부의 생활시간사용 연구결과

(단위: 평일, 시간·분)

주부의 활동별 시간	연 구 자							
	이기영외(1994)		홍성희(1993)		김정희(1993)		문숙재(1991)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수입노동	0	8.20	-	-	-	-	-	-
가사노동	8.20	3.28	7.13	4.42	8.20	7.10	10.24	8.0
사회·문화적	5.50	2.19	4.53	2.01	-	-	-	-
주부의 활동별 시간	연 구 자							
	오경희 (1995)		홍향숙, 박수경 (1994)a		한경미, 문숙재, 정영금 (1991)b (1988)		이정수 (1984)	
	-	-	-	-	-	-	-	8.45
수입노동	-	-	-	-	-	-	-	8.45
가사노동	5.31	7.48	7.48	3.34	3.34	8.54	8.54	7.53
사회·문화적	4.10	4.10	4.10	1.43	1.43	-	-	2.42
남편의 활동별 시간	연 구 자							
	조미환 (1995)		이기영외(1994)c		홍향숙, 박수경 (1994)a		문숙재, 이정수 (1991) (1984)	
	10.53	10.33	11.15	11.15	10.48	10.48	-	-
수입노동	10.53	10.33	11.15	11.15	10.48	10.48	-	-
가사노동	1.08	0.20	0.21	0.21	0.59	0.59	0.42	1.40
사회·문화적	-	3.01	2.37	2.37	3.24	3.24	-	3.38

a: 조기출퇴근 실시 이전 자료

b: 취업주부의 경우

c: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남편의 시간

보기가 주요활동인 남편의 평일 가족시간의 경우 부인의 취업여부가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고, 사회·문화적 시간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을 구별·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맞벌이가정에서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권력, 남편의 취업시간, 막내자녀연령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비취업 주부가정의 남편의 경우는 남편자신의 취업시간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고, 비취업주부가정보다 맞벌이가정에서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 변량의 차이가 크고 또 관련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C) 우리나라 선행연구의 제한점

시간사용실태 및 관련변인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시간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주제 및 방법면에서 발전을 도모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많은 연구들이 이론적 배경이나 기초없이 시간사용실태 파악에 치중하여 왔다(김외숙, 이기춘, 1988). 예를들면,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 연구에서 가사노동수행을 설명해 줄 변수 사용이 연구마다 차이가 있고, 또 각 변수들은 이론적 배경이나 규명없이 임의선택, 사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사용과 관련한 세부적 연구주제에 맞는 기초적 이론을 도입, 전개하여 이론적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간배분구조 분석 연구는 미흡하였다. 최근 허경옥과 김인숙(1996)의 연구에서 농촌주부의 시간배분구조를 분석하였으나

시간배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한 두가지 활동의 시간에 관한 연구는 시간배분과 관련한 전체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과 각각의 활동시간은 여타의 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Douthitt, Zick, McCullough, 1990). 따라서 전체적 시간사용 또는 시간배분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활동에의 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세계, 기혼여성의 취업은 시간사용 측면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여러 면에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맞벌이가정과 전업주부가정을 섞어서 분석·논의하기도 하여 연구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거나 연구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있다(이미숙, 1995). 부부의 시간사용을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구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종래의 몇몇 연구들은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지 않고 부부가 아닌 부인 혹은 남편 중 어느 한 쪽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분석해 오기도 하였다(이미숙, 1995). 이는 부부의 시간사용배분이 하나의 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임을 배제하는 것이다. 신가정경제학파는 부부간의 시간배분은 가족 전체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전제는 시간배분이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부부간의 의사결정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부부의 시간배분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미국의 시간사용실태 및 관련 변수 연구

미국의 경우는 1920년대부터 시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1960년대의 신가정경제학파의 영향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Gary Becker를 비롯하여 신가정경제학자들은 비시장경제부문인 가정행동 및 의사결정 등의 분야에 시장경제이론을 접목·시도하여 계속적으로 응용, 발전시킴으로서 이 분야

에 관한 연구를 더욱 활기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미국 신가정경제학파의 가정생산이론 모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A) 활동별 시간사용실태 연구

미국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연구에서 연구결과마다 차이가 있으나 1980년대 중반이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대략 6-8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표 2>에 의하면 이보다 다소 감소한 4-5시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Zick과 McCullough(1991)의 연구에서 1977-1978년과 1987-1988년의 시간사용을 비교하였는데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표 2>의 경향과 일치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미국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표 1>의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적은 양으로 하루 평균 육아시간은 약 1시간, 여가활동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점차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취업시간증가, 가족부양의 역할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정노동역할은 확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많아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면, Rexroat와 Shehan(1987)의 연구에서는 기혼남편의 경우 주당 5시간 20분을 가사노동에 참여한다고 하였고, Sanik(1990)의 연구에서는 28시간으로 나타나 두 연구간에 상당한 차이를 알 수 있다(조미환, 1996 재인용).

미국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우리나라의 최근연구와 비교하여 불매(직접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다 긴 시간이라고 하겠다. <표 2>에 제시한 미국 남편의 시간사용실태를 보면 남편의 경우 평일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정도를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어 우리나라 남편의 경우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남편의 평일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을 넘고 있는 반면, 미국 남편의 경우 대략 8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있으므로 보다

〈표 2〉 미국 부부의 생활시간사용 연구결과

(단위: 평일, 시간·분)

부부의 시간사용	연 구 자						
	Shelton (1990) 전업	Nickols, Abdel-Ghany (1983)a 취업	Coverman, Sheley (1998)	Firestone Shelton (1988)	Gronau (1978)b	Jeong (1993)	
수입노동	—	—	5.36	2.42	6.58	3.05	4.45
가사노동	5.10	4.10	4.16	3.54	4.14	4.35	6.27
육아노동	1.00	0.53	—	0.50	—	1.05	6.00c
사회·문화적	—	—	3.40	4.18	4.47	5.50	—

남편의 활동별 시간 사용	연 구 자					
	Bergen (1990)	Shelton 전업	Nickols, Abdel-Ghany (1983)a 취업	Coverman (1985)	Coverman, Sheley (1986)	
수입노동	7.40	—	—	8.07	—	8.17
가사노동	2.08	2.05	2.00	2.09	1.49	1.22
육아노동	2.25d	0.30	0.25	—	1.36	0.14
사회·문화적	—	—	—	4.15	—	4.30

참조: 연구단위가 주당시간인 경우 하루 평균 시간으로 재조정함.

a: 취업주부가정만을 대상으로. b: 이스라엘 여성을 대상으로.

c: 5세미만 자녀를 가진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치가 높음.

짧은 근로시간이 가사 및 육아노동에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활동별 시간사용 관련 요인 연구

활동별 시간사용을 설명하는 관련변인을 선정함에 있어 많은 선행연구자들은 이론적 배경이나 가설에 근거하는 대응변수를 사용하였다. 부부간의 가사노동 및 육아노동시간을 설명하는 대표적 가설은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가설, 시간이용가능(Time Availability)가설, 수요 및 실행가능(Demand/Response Capability)가설,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s)가설, 성역할관념(Sex-role Ideology)가설,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Cycle)가설로서 이 가설에 근거한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¹⁾ 관련 변수별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과 여가시간으로 구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효

과 검증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변수는 부인의 취업상태로서 이는 시간이용가능 또는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을 설명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부부의 취업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는, 취업주부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전업주부의 시간보다 적다는 것이다(Shelton, 1990; Maret, Finlay, 1984).

한편, 부인의 근로시간이 남편의 가사 및 육아노동시간에 미치는 연구에서 부인의 근로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정적인 효과가 밝혀진 연구가 있었다(예: Maret, Finlay, 1984).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상태가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을 증가시키지 않았고, 유의미한 요인이 아님이 발표되었다(Coverman, Sheley, 1986; Shelton, 1990). 한편, 남편자신의 근로시간은 유의미한 변수로서 자신의 가사 및 육아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Bergen, 1990; Coverman, 1985;

1) 이 가설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외숙과 서창원(1986), 허경옥(1994)의 연구를 참조할 것.

Coverman, Sheley, 1986).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및 효율성을 나타내는 임금률의 효과검증은 경제적 효율가설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Farkas(1976)의 연구에서 임금률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고 Gronau(1977)의 연구에서도 임금률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경제적 또는 인적자원(소득, 교육, 직업)은 주로 상대적 자원가설을 검증하는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이 변수들의 효과 역시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연구(예: Maret, Finlay, 1984)에서는 소득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부적인 관계가 밝혀졌고, 일부 다른 연구(Coverman, Sheley, 1986)에서는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 교육수준과 직업상의 지위의 효과 역시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자원도 남편의 시간사용 또는 가사분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된 연구도 있었다(Bergen, 1990; Huber, Spitze, 1983).

성역할관념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정신적 또는 태도 변수가 자주 사용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보고되었다(Barnett, Baruch, 1987; Mchale, Huston, 1984). 반면, 어떤 연구들(예: Bergen, 1990; Ross, 1987; Maret, Finlay, 1984)은 성 역할태도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밝혔다.

사회·인구적 변수의 효과 검증에서 부부의 연령, 자녀수, 자녀의 연령은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Berardo, Shehan, Leslie, 1987; Ross, 1987). 반면 Coverman(1985)의 가사노동시간 연구에서 남편 연령은 부적인 효과, 자녀의 수 및 어린자녀의 존재는 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Coverman과 Sheley(1986)의 연구에서 어린자녀의 존재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육아노동시간은 크게 증가함이나,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에는 차이가 없음이 조사되었다. Maret과 Finlay(198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연령은 부인의 가사 및 육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활동시간 연구의 모델은 대부분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이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인구적 변인과 가족상

황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Nickols와 Abdel-Ghany(1983)의 여가시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인과 남편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으로 나타나 하나의 특정 활동에의 시간은 다른 활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Firestone과 Shelton(1988)의 여가시간 연구에서도 자녀수, 연령 등의 변수이외에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시간을 역시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연구결과에서 가사노동과 직장예의 근로시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C) 시간배분구조 결정요인 연구

시간배분구조에 관한 연구는 Becker를 중심으로 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의 가정생산모형을 응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가정생산모형을 응용하여 시간배분을 연구한 대표적 실증적 연구로서 Douthitt와 연구자들(199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여성의 시간배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임금률, 비근로소득 등 경제적 특성과 가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서 연령, 가정내 어른수, 자녀수, 어린 자녀 연령 등이라고 결론지었다.

Mauldin과 Meeks(1990)의 연구에서는 양쪽 부모가 있는 일반가정과 편모가정의 여성시간배분을 분석하였는데, 시간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델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보통의 회귀분석이 아닌 외관무견회귀(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법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가족구조(일반가정, 편모가정)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거나,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님을 밝혔다.

시간배분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실증적 선행연구의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각 활동에의 시간배분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주어진 시간내의 시간배분은 각 활동간에 상호영향력이 있으므로 선형적 회귀분석으로 이같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선형적 형태를 띠는 시간배분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선형적 모델을 이

용하거나, 선형적 모델에 적합하도록 종속변수인 각 활동에의 시간배분을 변형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둘째, 시간배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남편보다는 주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사회 전반적 가치가 가사노동 및 육아는 주부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주부의 시간배분이 보다 선택적이거나 탄력적이고(특히 시장노동) 또 여러변수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므로 남편보다는 주부의 시간배분에 초점을 두어왔다.

끝으로, 많은 주부들간의 시간배분차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가족형태이므로 가족형태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이혼급증과 이로 인한 편모/편부가정의 보편화와 결부되어 많은 연구들이 편모가정과 일반가정 주부의 시간배분구조에 치중해 왔다.

III. 이론적 배경

1. 가정생산(Household Production) 모델

시간배분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Becker (1991)를 중심으로 하는 신가정경제학파의 가정생산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 또는 분배한다는 것이다. 효용함수는 다음의 (1)과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U = u(C, L, Z_c, Z_h)$$

여기서 C는 시장재, L은 여가, Z_c 는 자녀양육, Z_h 는 가사노동을 의미한다. 이 수식은 사람들의 효용은 시장재의 소비, 여가활동, 그리고 가정생산으로부터 창출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장재의 소비는 소득에 근거하게 되므로, 소득제약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소득제약을 나타내는 함수식은 아래의 수식 (2)와 같다.

$$(2) PQ = W M + V$$

여기서 P는 시장재의 가격, Q는 구입량, W는 시장임금, M는 시장노동시간, V는 비근로소득을 의미한다.

가정생산을 설명하는 신가정경제학적 접근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형태로 가정생산체계가 이루어 지는데 이 생산과정에 시간자원이 도입되고 있다. 가정생산체제는 아래의 수식 (3)과 (4)로 나타낼 수 있다.

$$(3) Z_c = f(T_c; D; X)$$

$$(4) Z_h = f(T_h; D; X)$$

위의 수식들은 가정생산이 시간제약(T), 가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의 특성들(D), 그리고 가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인 요소(X)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술적 요소(X)는 가정에서의 고정되어 있는 주택, 가구, 가전제품, 각종 가구 및 설비 배열 등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의미한다. 가정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D)으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용해 온 결정요인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사녀수, 어린자녀의 존재, 교육, 연령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시간자원은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주어지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5) T = L + M + T_c + T_h + O$$

여기서 T는 총시간(24시간), L은 여가시간, M은 시장노동시간, T_c 는 자녀양육시간, T_h 는 가사노동시간, O는 기타 생리적 시간을 의미한다.

2. 연구 모델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적인 가정생산모델을 본 연구에 응용하면, 무엇보다도 상품재화의 가격과 가정생산의 기술적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시간배분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 가사 및 육아노동, 시장노동 등 개별적 활동에의 시간이 상호연관되어 있어서, 주어진 24시간 중 한 활동에의 시간사용이 다른 활동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배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OLS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이같은 상호연관성을 배제하게 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간배분연구에서 Tyrrell과 Mount(1982)는 종속변수인 시간배분을 정규화시키기 위하여 시장노동중

특정활동에의 시간을 비율화시킨후 로그를 붙여 시간사용이 비선형적인 형태를 띠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²⁾ 이들의 모델은 Douthitt 연구자들(1990)의 연구에서 잘 응용되어 여성들의 시간배분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발전된 모델 중 Douthitt 등의 연구자들(1990)의 연구에서 응용된 방법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시간배분 변수를 OLS 통계기법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모델은 아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log(L/M) = b_0 + b_1 D,$$

$$(7) \log(HW/M) = b_0 + b_1 D,$$

$$(8) \log(C/M) = b_0 + b_1 D,$$

여기서 L은 여가시간, HW는 가사노동시간, M은 시장노동시간, C는 육아시간을 의미한다. D는 각각의 특정 활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나타난다.

위의 모델을 본 연구에 응용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기혼여성중 비취업여성의 경우이다. 위의 모델은 시간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시 각 개별 활동에의 시간을 동시에 결정하며 무엇보다도 수입노동시간에 근거하여 시간을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취업주부들은 시장노동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을 취업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주부의 경우는 위의 모델을 적용하여 변형된 종속변수를 사용하고,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종래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절대적 의미의 시간을 종속변수로 한다. 이 같이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의 시간배분을 구별하여 분석함으로써, 취업여부에 따르는 효과를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의 시간배분이 크

게 달라지는, 특히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현실적인 점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모델이 설정될 수 있다.³⁾

IV. 연구 방법

1.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주변 위성도시에 거주하는 결혼한 부인과 남편으로 조사방법은 주부와 남편이 각자 설문지를 기입하는 방법을 취하여 부인이 남편의 가사노동 또는 기타 활동에의 시간을 대리대답하지 않도록 하였고 일부는 개별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1995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40쌍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조사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달간 실시하였다. 부부중 한 사람이 응답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총 262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변수 측정

a) 종속변수

가사노동시간은 주요 가사노동활동에 할애한 사용시간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음식 준비, 설거지 및 식사 후 정리, 집안청소, 집 수리 또는 정원손질, 장보기 또는 물건구입, 의류손질 및 세탁, 서류정리 및 공과금 내기, 자동차 수리 및 관련 노동이다. 육아노동 시간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본적 육체적 일에 사용한 시간으로 기저기 갈기, 음식 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공부 봐주기, 책 읽어 주기 등을 포함한다.⁴⁾

여가를 위한 활동으로는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사회·문화적 활동을 포함하였다. 이는 종교적

2) 종속변수인 각 활동에의 시간을 정규화 시킨 후에 선형성을 전제로 하는 OL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OLS 방법에 적합하도록 종속변수를 변형하였다.

3) 참고적으로,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허경옥과 김인숙(1996)의 연구모델에서는 대부분의 농가주부가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위의 모델적용에 문제가 없다.

4) 육아를 위한 활동별 분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육체적 노동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정의하였다.

활동, 관람 또는 관전(스포츠, 연극, 영화, 동물원), 사회적 활동(학부모 모임, 동창회, 각종회합), 스포츠 활동, 대중매체 감상 및 독서, 대화,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였다. 시장노동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여가활동시간을 본 연구의 모델에 맞게 변형하였다. 수식 6), 7),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활동에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다시 로그를 취하여 정규화시킴으로써 선형적 분포에 적합하도록 종속변수를 변형시켰다.

b) 독립변수

독립변수들은 주요활동(가사노동, 육아, 여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각각의 활동자체가 갖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들면, 가사노동의 경우는 가사조력자의 유무, 배우자의 근로시간,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여가활동의 경우는 가사노동시간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추가시켰다.

가사노동시간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선정시는 가정생산모델에서 제시된 가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의 특성들(D)과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가설들에서 제기된 대응변수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였고 여기에 사회·인구적 변인을 추가시켰다. 여가활동시간을 분석키 위한 독립변수 선정시는 선행연구들에 의해 중요시 되어온 변수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⁵⁾ 독립변수들의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임금률: 취업주부 및 남편의 시간당 임금률 측정을 위하여 월평균 소득을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ii) 주관적 잠재소득: 효용극대화 원리를 반영하는 가정생산모델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므로 비취

업주부의 경우 시장임금률에 상응하는 요구임금률 개념의 중요성을 응용하여 비취업주부 자신이 자신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한 주관적 잠재소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⁶⁾

iii) 성역할 태도: 성별에 따르는 역할과 관련된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사고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가지 질문⁷⁾이 사용되었고 이 문항들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부인의 경우 0.62, 남편의 경우는 0.73이었다.

iv) 사회·경제적 변수: 가계총소득의 경우는 세금공제이후 부인소득, 남편소득, 비근로소득의 합으로 하였다. 교육수준은 국졸의 경우 1, 중졸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졸 5, 대학원이상은 6으로 하였다. 직업유형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분류하여 가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비전문직은 단순노무직, 판매 및 기술직, 영세 자영상인, 가내 제조업자를 포함하였고, 전문직은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중소기업주 및 자본가, 정부 고위관리 등을 포함하였다.

v) 가족상황 변수: 가사조력자의 유무(가변수), 방의 갯수, 막내자녀 연령, 자녀수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vi) 근로시간 및 가사노동시간: 주당 근로시간으로 측정하였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하루의 가사노동시간으로 음식만들기, 설거지 및 정리, 세탁 등 종속변수에서 측정된 방법과 동일하다.

V. 연구 결과

1. 부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남편의 월평균소득은 1백7십8만원이었으며, 취업한 부인의 월평균소득은 1백2만원이었다. 취업한 주부의 61%가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

5) 최종 독립변수 선정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과 D-W검증을 통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를들면, 부부의 직업유형, 소득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기 자신의 특성만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6)가사노동에 대한 주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은 문숙채(1990)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인, "주부님은 취업할 기회가 생길 경우 최소한 월평균 월급이 얼마일 때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를 사용하였다.

7)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허경옥(1994, 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주부 임금률*	5.66	499	66	남편 임금률	7.84	447	179
주부 역할관념	13.28	2.99	194	남편 역할관념	11.39	3.24	194
주부 월소득*	1.023	628	69	남편 월소득	1.781	76.5	189
주부 연령	35.10	6.19	196	남편 연령	38.45	6.95	199
총 자녀수	1.84	0.70	199	막내자녀 연령	6.98	5.14	193
가족 총소득	2,247.92	107	188	방의 수	2.58	0.90	199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주부소득*(N=64)				남편소득(N=199)			
100만원 이하	40	61.5		100만원 이하	34	17.1	
101-200 사이	24	36.9		101-200 사이	133	66.8	
201-300 사이	1	1.5		201-300 사이	22	11.1	
				301-400 사이	8	4.0	
				401 이상	2	1.0	
가족 총소득(N=199)				자녀수(N=199)			
100만원 이하	25	12.6		없음	11	5.5	
101-200 사이	93	46.7		1명	32	16.1	
201-300 사이	49	24.6		2명	135	67.8	
301-400 사이	20	10.1		3-4 사이	21	10.6	
401 이상	12	6.0					
주부 직업*(N=65)				남편 직업(N=189)			
비전문직	47	23.8		비전문직	124	65.6	
전문직	18	9.4		전문직	65	34.4	
주부 연령(N=199)				남편 연령(N=199)			
30세 미만	42	21.1		30세 미만	15	7.5	
31-40	128	64.3		31-40	124	62.3	
41-50	23	11.6		41-50	48	24.1	
51 이상	6	3.0		51 이상	12	6.0	
주부 교육수준(N=199)				남편 교육수준(N=199)			
중졸이하	30	15.1		중졸이하	22	11.1	
고졸	107	53.8		고졸	74	37.2	
초대졸	52	26.1		초대졸	84	42.2	
대학원 이상	10	5.0		대학원 이상	19	9.5	
조력자(N=199)				주부취업상태(N=199)			
없다	161	80.9		비취업	126	63.3	
있다	38	19.1		취업	73	36.7	

*: 취업주부의 경우.

참고: 임금률, 월평균소득, 총가족소득의 단위는 천원.

〈표 4〉 주부와 남편의 시간사용실태

(단위: 하루평균, 시간·분)

활동별 시간	총 표본			비취업주부가정		취업주부가정	
	주부 (N=187)	남편 (N=171)	남편 참여율(%)	주부 (N=69)	남편 (N=69)	주부 (N=124)	남편 (N=124)
시장장노동*	48.13 (N=68)	57.78 (N=189)		0.00 (N=69)	60.48 (N=69)	27.03 (N=126)	56.44 (N=119)
음식 들기	2.09	0.04	3.10	2.21	0.02	2.02	0.05
설거지, 정리	1.06	0.03	4.54	1.12	0.01	1.03	0.04
세탁	0.55	0.02	3.63	1.03	0.01	0.50	0.02
집안 청소	1.03	0.10	15.87	1.20	0.06	0.54	0.11
집수리, 손질	0.13	0.07	53.84	0.18	0.05	0.09	0.07
시장 보기	1.07	0.08	11.94	1.06	0.03	0.52	0.10
서류정리	0.36	0.05	13.88	0.41	0.02	0.33	0.05
자동차 일	0.02	0.15	750.0	0.01	0.18	0.01	0.13
총가사시간	7.11	0.54	12.52	7.02	0.38	6.24	0.57
신체돌보기	0.55	0.07	12.72	1.15	0.07	0.49	0.07
학교, 공부	0.50	0.12	24.00	1.03	0.12	0.44	0.11
총양육시간	1.45	0.19	18.09	2.18	0.19	1.33	0.18
종교활동	0.07	0.07		0.26	0.02	0.16	0.09
영화, 관람	0.08	0.08		0.11	0.08	0.05	0.06
사회활동	0.24	0.27		0.23	0.21	0.23	0.28
스포츠	0.17	0.23		0.16	0.18	0.17	0.27
TV시청	2.09	1.42		2.36	2.03	1.54	1.31
취미생활	0.06	0.05		0.09	0.09	0.03	0.03
총여가시간	3.11	2.52		4.01	3.01	2.58	2.46

남편 참여율 =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주부의 가사 및 육아시간) × 100

*: 취업주부의 경우이며 주당 시간.

였으며 36%인 24명의 소득은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는 대부분이 (66%)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갖고 있었다. 평균 자녀수는 1.84명이고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약 7세로 나타났다. 전체표본의 약 절반이 5세 미만의 어린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평균연령은 38세, 여성은 35세였다. 부인의 성역할관념에의 점수는 총합산값으로 보아 남편보다 진보적이며 비보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50%이상의 부인이 고졸이었으며, 남편의 경우는 37%가 고졸이었고, 42%가 대졸이었다. 직업의 경우 남편들중 34%인 65명이 전문직 종사자인 반면,

부인의 경우는 9%만이 전문직 종사자였다. 표본의 19%가정에서 가사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방의 갯수는 2.58이었다.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다른 활동에의 시간과 함께 〈표 3〉에 제시하였다. 취업한 부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 남편의 경우는 58시간이었다.

2. 부부의 시간사용실태

각 활동별 시간사용실태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가사노동의 경우 부인은 평일 하루 평균 7시간 11분을 할애하고 있었고 남편의 경우 54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비율은 부인 시간의 약 1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국남편이 약 20%-40%정도의 참여 비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저조한 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 가사노동시간을 세부활동별로 살펴보면 집안 청소, 자동차 관련일에 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주부의 활동별 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집수리, 정원 손질과 자동차 관련 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남편들이 전통적으로 보다 남성적 활동으로 인식되어 온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음식 만들기, 설거지, 빨래 등의 활동에 참여는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육아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는 평일 하루 19분, 부인의 경우는 1시간 45분을 할애하고 있다. 주부의 육아노동시간 중 남편의 육아참여비율은 18%로 가사노동의 참여비율보다는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시간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남편의 경우 4시간, 부인의 경우 4시간 43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이 중 대부분의 시간을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그리고 대화 및 잡담에 할애하고 있었다. 주부의 경우 평일 하루에 취미생활, 스포츠, 관람 등에는 1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남편의 경우는 1시간 10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부부의 여가시간 대부분이 소극적 형태의 여가활동에 할애되고 있음은 여가시간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3. 성별에 따른 활동별 시간배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시간배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고 있다. 짝을 이루는 T검증(Paired t-test)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활동 모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⁸⁾ 주부가 가사 및 육아 그리고 여가에 남

편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시장노동시간에서는 남편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시간의 경우 활동내용에 따라 성별의 효과가 다소 달랐다. TV시청 및 라디오청취 등 매스 미디어와 관련한 시간, 종교적 활동, 대화시간은 부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활동에의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인의 경우 남편보다 하루 평균 약 36분정도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이 시간의 대부분이 TV시청 등에 할애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의 여가활동은 부부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4. 시간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시간배분구조를 설명하는 관련요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성별 그리고 주부의 경우는 취업상태에 따라 구별,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성별과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비교하고, 각 개별활동시간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A) 성별과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른 모델의 적합도 비교

비취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시간배분 분석결과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시간배분모델이 차이가 있으므로 설명력을 단순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분석모델이 비취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시간배분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주부의 시간배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장노동시간 중 개별활동 시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있는데, 절대적 의미의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비취업주부의 시간사용을 위한 설명력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취업주부의 가사 및 육아, 여가시간은 여타의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아 시간배분을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취업주부들에 비해,

8)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부부를 구별하여 성별에 따른 시간배분의 차이를 추가 검증하였으나 구분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제시하지 않았음.

비취업주부들의 가사 및 육아, 그리고 여가시간은 사회·인구적 변인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시간배분모델은 주부의, 특히 취업주부의 시간배분보다는 설명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간사용이나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가설이 남편보다 주부의 시간배분설명에 보다 설득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결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모델이나 가설이 남편보다는 취업주부시간을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편들이 수입노동에 과중한 양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나머지 시간사용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변수들의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 관련 요인의 효과 검증

비취업주부의 시간배분을 살펴보자. <표 6>에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부인의 성역할 태도, 조력자의 존재유무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들간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자신의 역할에 관한 정신적 가치관이나 태도 그리고 해야 할 가사노동 양을 결정하는 조력자의 유무에 근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효율 가설의 대리변수로서 잠재적 소득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노동시간의 경우 부인의 연령과 어린자녀의 존재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 검증 결과

(paired t-test 결과, 시간 단위: 분, N=199)

시간사용영역	평균차이 ^a	표준오차	t 값
시장 노동 ^b	8.39	2.29	3.65***
음식 만들기	123.14	4.85	25.36***
설거지 및 정리	63.31	2.93	21.54***
의류손질, 세탁	52.61	3.24	16.20***
집안 청소	54.66	3.13	17.45***
집수리, 정원손질	6.90	1.91	3.61***
시장 보기	50.52	3.36	15.02***
서류정리, 공과금	32.20	2.17	14.78***
자동차관련 일	-12.10	1.99	-6.06***
총 가사노동시간	370.87	14.01	26.46***
신체 돌보기	49.32	4.29	11.47***
학교, 공부봐주기	39.46	3.26	12.07***
총 자녀양육시간	88.419	6.491	13.621***
종교활동	8.17	3.04	2.68***
영화 등 관람	-0.77	2.63	-0.29
사회활동	-4.75	4.46	-1.06
스포츠 활동	-3.14	3.70	-0.85
TV시청, 라디오	31.18	8.49	3.66***
대화 및 잡담	29.66	6.99	4.24***
각종 취미 생활	2.36	1.71	1.37
총 여가활동시간	35.36	12.59	2.80**

a: 평균차이 = (주부시간 - 남편시간)

b: 주부가 취업한 맞벌이가정 대상(단위: 주당 근로시간, N=72)

*** P < .001, ** P < .01

〈표 6〉 비취업주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 결과

(N=102)

독립 변수	가사노동시간		육아 시간		여가활동시간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주부 가사노동평가	0.29	0.05	-0.07	-0.02	-0.12	-0.02
주부 성역할 태도	11.52*	0.20*	2.40	0.07	0.27	0.26
남편 근로시간	-0.14	-0.01	-0.65	-0.12	0.94	0.09
가족 총소득	-31.16	-0.14	-13.17	-0.10	32.06	0.14
주부 교육수준	-37.73	-0.16	-0.99	-0.00	17.70	0.07
주부 연령	2.77	0.10	-5.66**	-0.36**	2.65	0.09
자녀 수	-46.29	-0.13	-5.53	-0.02	-2.76	-0.00
어린자녀 존재	40.33	0.13	47.03**	0.26**	-19.39	-0.06
조력자 존재	100.36*	0.22*	14.90	0.05	95.43*	0.18*
방의 갯수	-20.89	0.14	—	—	—	—
주부 가사노동시간	—	—	—	—	-0.27**	-0.26
intercept	542.25**		370.18**		-111.33	
R square	0.128		0.354		0.116	
F 값	1.346		5.743		1.347	

* $p < .05$, ** $p < .01$

〈표 7〉 취업주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 결과

(N=104)

독립 변수	log(가사/시장)		log(육아/시장)		log(여가/시장)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log(주부 임금률)	0.10	0.05	1.03*	-0.02*	0.10**	0.05**
주부 성역할 태도	0.10	0.21	-0.04	0.07	—	—
주부 근로시간	-0.05**	-0.60**	-0.01	-0.12	-0.03**	-0.37**
남편 근로시간	0.00	0.10	0.01	-0.12	0.01	0.13
가족 총소득	-0.37*	-0.25*	-0.60*	-0.10*	0.15	0.11
주부 직업	-0.07	-0.02	0.40	0.08	-0.93*	-0.27*
주부 교육수준	0.30	-0.16	-0.38	-0.00	-0.07	-0.03
주부 연령	-0.00	0.10	-0.20**	-0.36**	-0.09*	-0.36*
자녀 수	0.74*	0.31*	0.85*	-0.02*	-0.00	-0.00
어린자녀 존재	-0.19	-0.06	0.31	0.26	-0.33	-0.11
조력자 존재	-0.07	-0.02	0.56	0.05	0.31	0.09
방의 갯수	-0.49	-0.26	—	—	—	—
주부가사노동시간	—	—	—	—	-0.00**	-0.36**
intercept	2.28		7.91**		4.44**	
R square	0.546		0.494		0.582	
F 값	3.721		3.474		4.954	

* $p < .05$, ** $p < .01$

참조: 가사는 가사노동시간, 육아는 육아노동시간, 여가는 여가활동시간, 시장은 시장노동시간을 의미함.

〈표 8〉 남편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 결과

(N=146)

독립 변수	log(가사/시장)		log(육아/시장)		log(여가/시장)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log(남편 임금률)	-0.00	-0.00	-0.07	0.02	0.13	0.04
남편 성역할 태도	-0.00	-0.01	2.40	-0.01	--	--
남편 근로시간	-0.03*	-0.26*	-0.65*	-0.21*	-0.02*	-0.21*
주부 근로시간	0.01*	0.22*	-0.65	0.00	-0.00	-0.01
가족 총소득	-0.11	-0.05	-13.17	-0.37	-0.31	-0.18
남편 교육수준	-0.02	-0.01	-0.99	0.09	0.16	0.07
남편 연령	0.04	0.16	-5.66**	-0.06**	-0.01	-0.05
자녀 수	-0.30	-0.08	-5.53	0.30	0.37	0.12
어린자녀 존재	0.13	0.03	47.03	-0.16	-0.02	-0.00
조력자 존재	-0.30	-0.05	14.90	0.00	0.13	0.03
방의 갯수	-0.05	-0.02	--	--	--	--
남편가사노동시간	--	--	--	--	0.00*	0.19*
intercept	-0.36		1.84		0.96	
R square	0.136		0.135		0.136	
F 값	1.751		1.917		1.646	

* $p < .05$, ** $p < .01$

참조: 가사는 가사노동시간, 육아는 육아노동시간, 여가는 여가활동시간, 시장은 시장노동시간을 의미함.

〈표 7〉에서 취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근로시간중 가사노동시간비율은 근로시간, 자녀수, 가족총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아시간의 차이는 임금률, 가족총소득, 부인 연령, 자녀 수에 의해 유의미하게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취업주부의 시장노동시간의 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볼 때, 가사노동시간 결정변수 조사시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함이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가설에 근거하여 설명하여 볼 때, 전업주부의 경우 성역할가설이, 취업주부의 경우 이용가능시간가설이 설득력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분석결과에서 취업상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변수로 나타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여가시간분석시 가사노동시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여가시간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는 전업주부의 경우 조력자의 존재가, 취업주부의 경우 임금률, 근로시간, 직업유형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는 시간배분시 자신의 시장노동시간이 가장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시간은 세 가지 주요 활동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시간중 가사노동시간비중의 경우 부인의 근로시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부인의 시간제약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가설과 연결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가능시간 가설 또는 수요 및 실행가능성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육아노동시간비율에는 남편 연령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아버지의 경우 더 많은 시간비중을 육아를 위해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의 경우, 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남편 역시 자신의 시간배분결정시 시장생산활동 및 가정생산활동이 여가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효율 가설효과와 관련하여 임금률의 영향

력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임금률은 취업부인의 육아와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임금률의 효과는 남편의 경우 크지 않은 반면, 취업여성의 경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결과는, 사회적 인식상 가정생산활동이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있어, 시장노동활동은 여성에게 있어 보다 선택적 사항이며 임금률변동에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여성의 시간배분이 남편보다 임금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부부의 시간사용실태 및 구조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7시간 11분, 육아시간은 1시간 45분이었고 남편의 경우는 54분과 19분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로 남성 중심형 활동에 할애하고 있어 가사노동은 여전히 성별 분리가 확연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의 경우 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43분, 남편은 약 4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여가 대부분은 TV시청, 라디오 시청, 대화 등 소극적 여가활동에 할애하고 있고 스포츠, 취미, 각종 관람 등 적극적 형태의 여가활동에는 약 30여분 정도를 할애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부부의 여가활동이 내용적 측면에서 불균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의 시간배분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생산모델을 도입하였는데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델은 남편의 시간배분구조보다는 주부의 시간배분구조 설명에, 비취업주부보다는 취업주부의 시간배분 설명에 더 적합하였다. 이는 취업주부의 시간배분은 비취업주부 또는 남편보다 여타의 조건변화에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배분구조를 설명하는 변수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 비취업주부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설명

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성역할태도 가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취업시간이 시간배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 이용가능시간 가설의 효과를 지지하고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연령과 어린자녀의 존재가 비취업주부들의 시간차이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경우 부인의 연령과 자녀수 이외에도 취업상황 즉 임금률, 가족총소득 등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시간의 경우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 가사노동시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취업주부의 경우는 임금률, 자신의 근로시간, 직업유형, 부인연령 등에 의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의 시간배분구조를 설명하는 변수는 자신의 근로시간이었다. 남편의 근로시간은 세 가지 활동에의 시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인의 근로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만 영향을 미쳤고 육아 및 여가활동 시간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주부와 남편의 시간배분에 미치는 임금률의 효과를 살펴보면, 임금률은 남편의 시간배분구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취업주부의 시간배분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률변화는 남편보다는 여성의 시간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종래까지의 가정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가사 및 육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바, 여성의 시간배분은 임금률 변화에 보다 민감함을 알려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생산모델을 응용하여 이론적 발전을 꾀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및 많은 연구들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을 기초로 편모가정, 단독가구, 노인가정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부부간 가사노동분담 및 시간배분구조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전개되어야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외숙, 서창원(1986).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5.
- 2) 김외숙, 이기춘(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 3, 171-187.
- 3)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 4, 37-51.
- 4)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275-300. 학지사.
- 5)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2, 285-302.
- 6) 문숙재(1990). 가정생산-가사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신광출판사.
- 7) 오경희(1995). 청주시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 3, 74-87.
- 8) 이기영, 송혜림, 이승미, 민순선, 서지원(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1, 97-112.
- 9) 이기영, 이승미(1994).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 (3), 11-26.
- 10)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11)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 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장시간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2, 171-190.
- 14)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 2, 1-13.
- 15) 허경옥(1994). 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 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 3, 63-70.
- 16)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 90-105.
- 17) 허경옥, 김인숙(1996).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연구: 가정생산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3, 181-195.
- 18) 홍성희(1993).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2, 55-68.
- 19) 홍향숙, 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 2, 49-60.
- 20) Barnett, R. C., & Baruch, G.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21)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rev. ed.),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22) Berardo, D. H., Shehan, C. L., & Leslie, G. R. (1987). A residue of tradition: Jobs, careers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81-390.
- 23) Bergen, E. (1990).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domestic labor: An investigation of husbands' particip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 of Wisconsin. NSFH working paper, 36, CDE. Univ. of Wisconsin-Madison.
- 24) Berk, R. A. (1980). *The New Home Economics: An agenda for sociological research*. In S. F. Berk (eds). *Woman and household labor*. Beverly Hills, CA: Sage Pub.
- 25)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26) Coverman, S., & Sheley, J. F. (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 27) Douthitt, R. A., Zick, C. D., & McCullough, J. (1990). The role of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in explaining time-use of single and married mothe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 1, 23-52.
- 28) Farkas, G. (1976). Education, wage rates, and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husband and w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473-484.

- 29) Firestone, J., & Shelton, B. A. (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 4, 478-495.
- 30) Gronau, R. (1976). The allocation of time of Israeli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S201-S220.
- 31) Huber, J., & Spitze, G. (1983). Sex stratification: Children, housework, and jobs. 75-77. Academic press.
- 32) Maret, E., & Finlay, B. (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57-364.
- 33) Mauldin, T., & Meeks, C. B. (1990). Time allocation of one-and two-parent mothe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 1, 53-70.
- 34) McHale, S. M., & Huston, T. L. (1984). Men and women as Parents: Sex role orientations, employment, and parental roles with infants. *Child Development*, 55, 1349-1361.
- 35) Nickols, S. Y., & Abdel-Ghany, M. (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2, 189-198.
- 36) Rexroat, C., & Shehan, C. (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37-750.
- 37) Ross, C. E. (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 816-833.
- 38) Sanik, M. M. (1990). Parents' time use: A 1967-1986 comparison. *Lifestyles: Family and Home Economics Issues*, 11, 3, 299-316.
- 39) Shelton, B. A. (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15-135.
- 40) Tyrrell, T., & Mount, T. (1982). A nonlinear expenditure system using a linear logit spec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4, 539-546.
- 41) Zick, C. D. & McCullough, J. M. (1991). Trends in married couples' time: Evidence from 1977-1978 to 1987-1988. *Sex Roles*, 24, 459-487.